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권역별 난가 조사·발표 예정

‘후장기’ 관행 개선 등 넘어야 할 장벽 많아

계란가격이 조만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 권역별 난가를 포함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도매시장 역할 및 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장기간 ‘생산자와 유통인, 판매처’ 사이에 상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가격 결정 기능 부재 등 ‘계란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른 방침이다.

이와관련 축평원의 산지가격 발표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 및 유통상인 단체들이 동의를 했고 (가칭)계란 가격발표 협의회를 구성하여 ‘표준계약서’ 논의 등 발전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장기간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하던 기준가격이 축평원에서 이루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도 있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축평원은 매입·매출가격이 일치하는 계란 유통센터(GP)와 관내 거래농가 다수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선정, 전일 계란 거래가격을 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수집된 가격을 토대로 권역별 산지가격을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발표하게 되면서 계란 유통의 선진화를 기하는데 한발 앞서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난가는 과거 1970년대 계란 물동량이 많았던 서울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청량리계우회와 천호계우회 주축으로 생산자 중심의 난가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던 것이 1979년 1월 계우회연합회가 발족되고 같은 해 2월부터 본회에서 발행하는 시세속보(양계속보 전신)를 통해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의혹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불공정 문제 해결 및 가격조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축평원’을 통해 2016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의 산지, 소비자 가격을 발표해 왔다. 2023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발족되면서 본회와 함께 가격 발표를 함께 진행해왔으나 신뢰성, 공정거래 등 가격 발표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난가 권역별 발표가 이루어질 경우 축평원이 ‘이력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한 수급DB 정보를 통해 소비시장의 패턴은 물론 생산량까지 조사된 것을 분석, 발표해 간다면 더욱 믿을 수 있는

난가 권역별 발표가 이루어질 경우 축평원이 ‘이력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한 수급DB 정보를 통해 소비시장의 패턴은 물론 생산량까지 조사된 것을 분석, 발표해 간다면 더욱 믿을 수 있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후장기’ 관행인데 이 부분까지 해결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PLS 제도 시행 첫해 양계산물 안전성에 더 큰 관심을

정부의 품질 안전검사 수위 높아질 듯

금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본격 시행

되면서 정부에서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활발하다. PLS는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부적합 수준의 일률 기준을 0.01mg/kg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양계업계는 지난 2017년 ‘계란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농약이나 동물약품의 사용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료업계 등에서도 잔류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현실적 문제가 다소 해결되면서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닭진드기, 딱정벌레 등을 퇴치하는데 일반 약제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자칫 닭이나 계사에 농약이나 동물약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가에서는 PLS가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관리감독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축산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명기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점검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 국제행사(올림픽 등)가 개최될 경우 생산과 납품되는 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식중독균 위생검사와 계란선별포장 및 위생적 취급에 대한 점검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액란 및 알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은 매년 3월에 지자체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며 유통단계 및 공급업체에 대한 계란 수거검사는 6~11월 사이에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양계업을 영위해 가기 위해 잔류물질 뿐 아니라 살모넬라 등 안전성을 위해하는 요인을 배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양계**